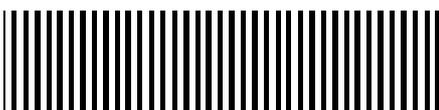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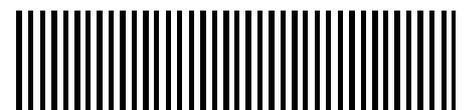


동아시아·서머스쿨2017 모집요강

모집기간:2017년 6월23일(금)



나라현·나라현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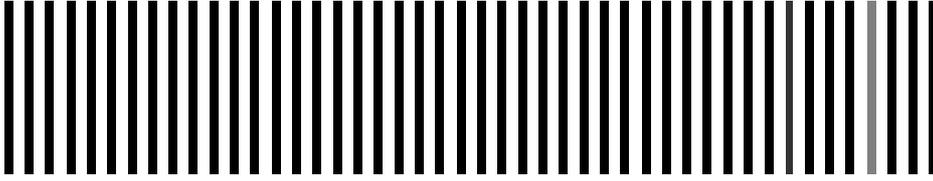
첫머리

최근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해외무역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자연재해 대책 등 여러분야에서의 연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 사회사정 등의 자유학(Liberal arts)를 배우고 각국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상호간의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높여 서로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현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 2011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아시아·서머스쿨』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79대 내각총리대신
동아시아·서머 스쿨 명예 학원장
호소카와 모리히로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가 대화와 상호교류를 통해 역사와 문화 등의 공통성과 상이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라현은 일본이 국가조성을 진행한 6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수도 '헤이조쿄'를 둔 곳이며,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기술과 문화가 전해져 국가조성을 위한 기초가 다져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나라현이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동아시아·서머스쿨』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이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많은 것을 배움과 동시에 미래로 이어지는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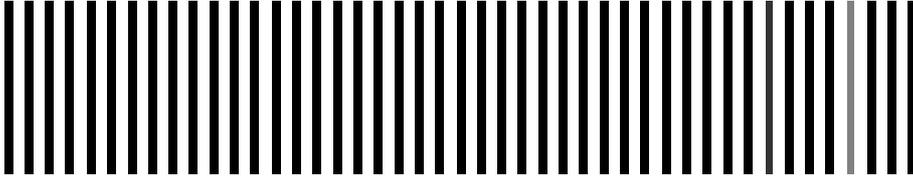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서머스쿨 학원장
아라이 쇼고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서머스쿨』은 국제화 사회에서 동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를 이끌 인재육성과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7회째 개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스쿨의 커리큘럼은 역사·문화, 환경과 의료 등, 여러분야에 걸쳐 각 분야에 정통한 강사진의 강의 외에도 나라현의 문화유산을 접하고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찰연구와 수강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고 직접 성과발표를 하는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서머스쿨』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지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쌓아 미래의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개최개요

개최시기 : 2017년 8월 17일(목)~8월 29일(화) 13일간

개최장소 : 나라현내(중심회장 : 나라 현립대학(나라시))외

명 칭 : 동아시아·서머스쿨 2017

주 최 : 나라현, 나라 현립대학

모집인원 : 약 45명

수강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지방정부 청년 직원

참가자격 : 동아시아서머스쿨 수강자는 하기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합니다.

- ①(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하고 있는) 대학, 혹은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을 것.
- ②일본어로 이루어지는 대학수준의 강의와 그룹 토의, 레포트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
- ③전 일정에 참가 가능할 것.

참가비용 : 강의와 시찰, 체험학습에 드는 비용, 그 외 숙박비(조식포함), 점심식사 비용(※자습일 제외)은 주최자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하 비용에 대해서는 수강생 자기부담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④회장까지(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국내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나라시내에 있는 집합장소까지)드는 비용(왕복).
- ⑤개최기간 중의 저녁식사와 자습일의 점심식사 비용, 개인적인 식비와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용 등.

그 외 :

- ①연수 기간 중의 도난, 분실, 사고 등에 대해 주최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사전에 해외여행 상해보험 등에 가입(※자기부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③마지막 날에는 개최 기간을 통해 얻은 학습성과를 정리한 성과발표회를 실시합니다. 관계자로부터의 강평 및 공표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④개강식 및 환영파티, 수료식 및 송별파티는 정장차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복장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강의와 일본인 가정방문(외국인을 가정에 초대하여 일상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는 교류)에도 노출이 심한 복장, 샌달 등은 자제하는 등 연수 중이라는 것을 의식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⑤연수 기간 중에 기록을 위해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지나 홈페이지 등에 활용되오니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커리큘럼 구성】

차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하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학습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성'과 '관계성'을 발견하고 폭넓은 자유학(Liberal arts)을 배운다.

(1) 【강의】(90분×15회)

역사, 문화, 관광, 정치, 사회보장, 환경, 과학기술, 의료 등의 각 분야에서 저명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강의를 실시합니다.

(2) 【그룹 토의 및 발표】(90분×5회)

하루의 강의를 끝난 후, 수강생의 능동적인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행하에 수강생 서로가 토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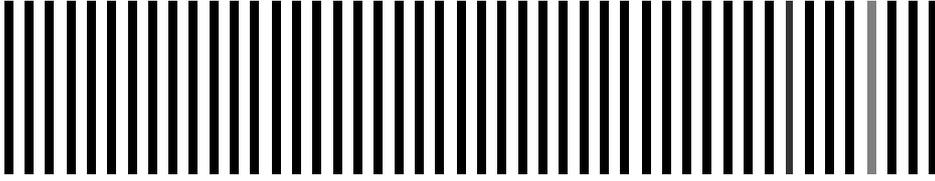
(3) 【시찰, 체험학습】(총 2일)

학습할 때 있어 새로운 발견과 나라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 내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시찰과 일반가정의 협력을 받아 실시되는 가정방문 체험을 실시합니다.

(4) 【성과 발표회】

연수기간 중 커리큘럼을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하고 성과를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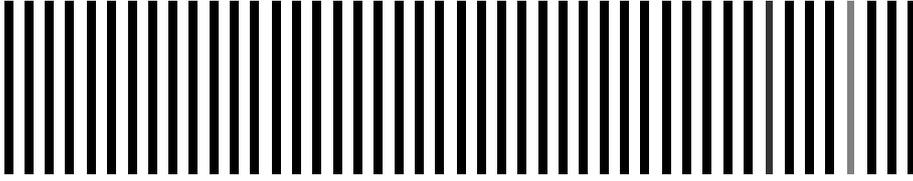
제출한 성과물 등은 기록지와 홈페이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리큘럼 일정(예정)



※강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신청

(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 하고 있는 대학, 지방정부로부터) 하기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서식파일 첨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모집 기간

2017년 6월 23일(금)까지 ※소인유호

(2) 제출서류

① (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 하고 있는) 대학, 지방정부로부터의 추천장 (별도양식 ※일본어로 기재)

② 동아시아 서머스쿨 수강 신청용지(별도양식 ※일본어로 기재)

★전자메일로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엑셀 형식으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3)수령확인 메일

나라 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에서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전자메일을 통해 수령 확인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내는 곳, 문의처

〒 630-8258 奈良県奈良市船橋町10番地 奈良県立大学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事務局

E-Mail : summer-school@narapu.ac.jp

제출서류는 전형 결과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모집인원

약 45명. 또한 수강생 선발시 특정지역 출신자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응모서류 취급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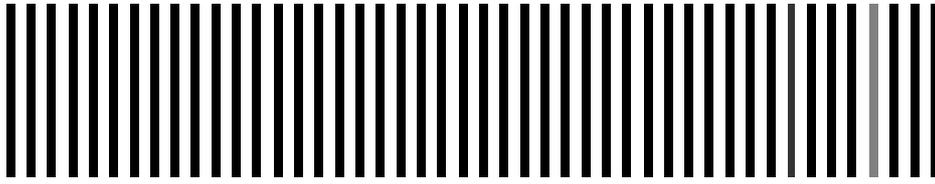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이하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대학에서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수강자 전형을 위해.
- 『동아시아서머스쿨』에 관련한 정보 제공과 연락 등을 위해.
- 『동아시아서머스쿨』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강결정에 대한 통지

2017년 7월 초순경에 추천받은 대학 혹은 지방정부 앞으로 수강 결정 통지를 연락, 송부합니다.

※연수 실시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므로 수강이 결정된 후에는 참가 취소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서머스쿨 2017』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히라가나 순)

【교통과 관광】

이와무라 사토시(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나라 현립대학 객원교수)



도쿄 대학 법학부 졸업. 운수성(당시) 입성 후, 항공국장, 운수정책국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등을 거쳐, 2004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을 지낸 후 2005년 퇴관. 그 후 (재)항만근대화 촉진협의회 회장, 게이오 기주쿠 대학 환경정보학 교수, 도쿄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특임교수, (주)손해보험 재팬 고문, 간사이 전력(주) 고문, 간사이 국제공항(주) 이사회 회장을 역임. 현재 (일반 재단법인)환경 우량차 보급기구 회장, (공익 재단법인) 교통 에콜로지·모빌리티 재단 회장 등 겸함.

【문화】

오카모토 아키오(전 가스가 타이샤(春日大社) 부공사, 나라 현립대학 객원교수)



1954년 나라현 출생. 고쿠가쿠인 대학 문학부 신도과 졸업. 가스가 타이샤(春日大社)에 봉직. 가스가 타이샤에서는 특히 옛날 의식의 부흥에 힘을 쏟았으며 매년 행해지는 미카구라(御神樂)와 가스가와카미야온마쓰리(春日若宮おん祭り)의 오타비소사이(御旅所祭)등 고실 및 신에게 바치는 음식 미케(御饌)등의 옛 의식 부흥, 신사에 전래 되는 가구라(神樂)의 맥이 끊어진 곡을 복원하고 산준소가쿠(三旬奏楽)의 부흥 등 신께 드리는 여러제사를 복원하고 정기개축에 있어서는 메이지유신 시대에 손실되었던 의식을 1995년 제 59차 정기개축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 시켰다. 2016년부터 현직에 재직중.

<주요저서> 『야마토 옛 것 산책』(2000년), 『야마토 옛 것 보충집』(2010년), 『신께서 주신 도시락통』(2015년), 『야마토의 보물』(2016년) 등.

【동아시아 교류사】

가미가이토 겐이치(오쓰마 여자대학 교수)



도쿄대학 교양학과 졸업. 도쿄대학 인문학 대학원 수료. 박사학위 취득(도쿄대학, 학술). 도쿄 대학 문학부 전임강사, 국제일본문화연구 센터 조교수, 데즈카야마카쿠인 대학 인간문화학부 교수(부학장), 오테마에 대학 종합문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룸. 1990년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로 산토리 학예상(사회·풍속부분)을 수상.

<주요저서> 『아지랑이의 아스가 소설 쇼토쿠 태자』(2010년), 『고대 일본 : 수수께끼의 4세기』(2011년), 『하이브리드 일본 : 문화·언어·DNA에서 찾는 일본인의 복합기원』(2011년), 『가쓰 가이슈와 막부말 외교 영국·러시아의 위협에 저항하여』(2014년) 등.

【교육】

사토 데이이치(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 교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참의·객원교수)



1941년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문부성(당시) 입성 후 문화청 차장, 학술국제국장, 대신관방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문부사무차관을 지낸 후 2000년 퇴관. 그 후 같은해 일본학술진흥회 이사장, 2003년 일본국 정부유네스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07년 도쿄 국립 박물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문화와 국제법-세계유산조약·무형유산조약과 문화 다양성 조약』(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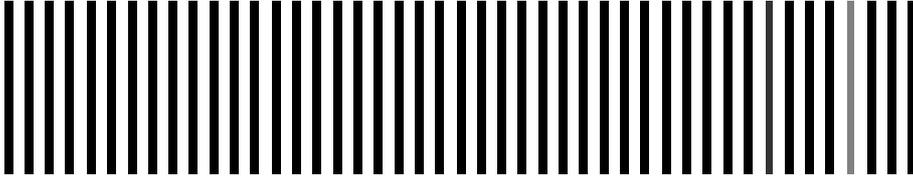
【국제법】

다케우치 유키오(전 외무 사무차관, 전 대법원 재판관, 나라 현립대학 객원교수)



나라 여자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교토 대학 법학부 졸업. 외무성 입성 후, 조약국장, 북미국장, 종합 외교 정책 국장,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역임하고 2002년 외무 사무차관, 2005년 퇴임. 외무성 고문 취임. 정책 연구 대학원 대학 연계교수, 대법원 판사를 지내고 2013년 대법원 판사로 정년 퇴관.

2014년 욱일대수상(훈장)을 받음.



【환경】

다나카 마사루(교토대학 명예교수, 모네모리사토우미 연구소장)

교토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학위 취득. 세이카이쿠 수산연구소 연구원, 교토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교토대학 필드과학교육연구 센터장, 말레이시아 사바 대학 보르네오해양연구소 객원교수 등을 거쳐, 2011년부터 문부과학성 동북 마린사이언스 거점 형성 사업 주사, (공익법인)국제고등연구소 리서치 펠로우, NPO 법인 모리와우미노고이비토(숲은 바다의 애인) 이사, 2013년 부터 NPO법인 SPERA 모리사토우미 이사, 2014년 4월부터 모네모리사토우미 연구소장을 맡고있다.

저서로는 「모리사토우미 연환학의 길」, 「치어-생존과 변태의 생리생태학」, 「수산의 21세기」, 「모리사토우미 연환학」, 「모리사토우미 연환에 따른 아리아케 해 재생의 길」 등.



【역사】

다나베 이쿠오 (나라 현립대학 특임교수)

게이오기주쿠 대학 문학부 졸업. 문화청 미술공예과 주임 문화재 조사관, 도쿄 국립 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장, 나라 국립 문화재 연구소 헤이조 궁 유적지 발굴조사부장, 독립행정법인 국립 문화재 기구 이사 나라 문화재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1년 부터 현직. 2015년 가을의 서훈에서 서보소수장을 받음.

<주요 편저서> 「역사 고고학 대사전」(2007년), 「고대 수도2 헤이조쿄의 시대」(2010년) 등.



【사회보장】

쓰지 데쓰오 (도쿄대학 특임교수)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후생성(당시)에 입성 후, 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과장, 대신관방 심의관(의료보험, 건강정책 담당), 관방장, 보험국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후생노동 사무차관을 거쳐, 2007년 퇴관. 그 후 덴에초후카구엔 대학 교수, 도쿄 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 기구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도쿄 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 특임교수로 재직 중. 후생노동성에 재직 할 당시에는 의료제도 개혁에 관여했다.

<주요 저서> 「초고령사회 일본 시나리오」(2015년)



【과학기술】

마쓰모토 히로시(이화학연구소 이사장, 전 교토대학 총장)

교토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전자공학전공 석사 취득. 교토 대학 주공(宙空)전파과학 연구 센터장, 교토대학 생존권 연구소 소장, 교토대학 이사·부학장, 교토대학 총장을 거쳐 현재에 이음. 교토대학 명예교수. 전문분야는 우주과학, 우주전파공학. 2006년 Gagarin Medal, 2007년 자수포장(紫綬褒章), 2008년 Booker Gold Medal, 2015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 2017년 대영제국훈장을 수상함.

<주요 저서> 「우주개혁과 컴퓨터」(1996년), 「교토의 우주학」(2009년), 「우주 태양강 발전소」(2011), 「교토에서 대학을 바꾸다」(2014년), 「개혁은 실행 나의 이력서」(2016년)



【문화】

모리 히로미치(교토 산업대학 교수)

오사카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졸업. 나고야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중국문학전공) 박사과정 중퇴. 아이치 대학 대학 강사, 도시샤 대학 조교수, 오사카 외국어 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음. 2001년 이후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객원 연구원 역임. 전공은 동아시아어문교섭사. 「위지 왜인전」과 「일본서기」의 문헌학적 연구를 해왔다. 위지 왜인전에서는 역주와 「야마타이국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후자인 일본서기에서는 음운과 문장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시기 구분론을 전개하여 성립의 과정을 밝혔다.

<주요 저서> 「왜인전을 통독하다」, 「왜인전의 지명과 인명」(1985년, 「일본 고대」 제1권 「왜인의 등장」中央公論社), 「고대 음운과 일본 서기의 성립」(1991년, 大修館書店, 긴다이치 교스케 상), 「일본서기의 비밀」(1999년,中公新書,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일본서기 성립의 진실 - 고쳐쓴 주도자는 누구인가」(2011년,中央公論新社) 등.

【관광】



야쿠시지 히로유키 (나라 현립 대학 지역창조학 강사)

영국 엑세터 대학 비즈니스 스쿨 박사후기과정 취득. Ph.D. (Management). 전문은 관광학, 지리학,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근무한 후 2015년부터 나라 현립대학 교원으로 근무하여 현재에 이름.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도입하여 실천과 이론을 연결한 알기쉬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



야마다 게이치로 (JTIC.SWISS대표, 나라 현립대학 객원교수)

1965년 미에현 출생. '세계 톱레벨의 관광 노하우를 각지로 넓혀가는 카리스마'로 내각부, 국토교통성(관광청), 농림수산성이 인정(2005년)하는 관광 카리스마. 스위스 체르마트와 발레 주 정부 등의 관광국의 일본 아시아 마케팅 담당 외에 JTIC.SWISS(일본어 인포메이션 센터 : 1992년 설립)대표, NPO법인 일본 에코투어리즘 협회 이사(2004년)을 맡음.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보전, 이용, 활용을 추진해온 환경 카운셀러(환경성 1996년 사업자 부문, 2003년 시민 부문 등록)이기도 하며, 지역의 힘 창조 어드바이저(2010년 총무성), 지역활성화 전도사(2015년 내각부 관방), 쿨 재팬 지역 프로듀서(2016년 내각부 관방)등 폭넓은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정치】



이종원 (와세다 대학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교수, 와세다 대학 한국학 연구소장)

한국출생.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졸업(법학박사). 전문분야는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도호쿠 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 대학 법학부 교수, 미국 프린스턴 대학 객원 연구원, 아사히 신문 아시아 워크 객원 연구원 등을 역임하여 현재에 이름.
<주요 저서>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 역사가 협의회 외국어 저작상 등 수상), 『동아시아 화해의 길』(공편저, 2016년), 『국제정치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공저, 2012년)

【동양의학】



와타나베 겐지 (게이오 기주쿠 대학 환경정보학부 교수, 의학부 겸담교수, 게이오 기주쿠 대학원 정책 미디어 연구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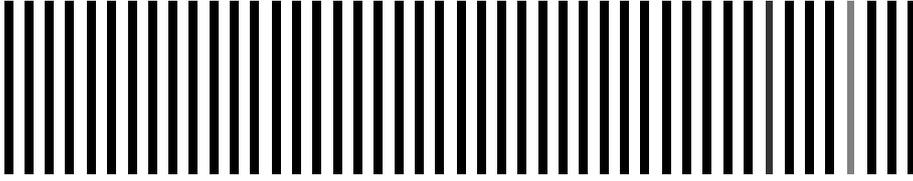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학부 졸업. 의사. 의학 박사. 나라현 고문, 가나가와현 고문, 나라현 한방 추진 고문.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학부 내과, 도카이 대학 의학부 면역학 교실 조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유전학 교실 박사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기타사토 연구소(현 기타사토 대학) 동양의학 종합연구소,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학부 동양의학 강좌(현재 한방의학 센터)준교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름. 일본내과학회내과전문의, 일본 동양의학회 전문의, WTO국제 질병 분류개정 위원, 한방산업화 추진연구회 이사장 등을 겸함.

【비교문학】



왕 민(호세이 대학 교수)

허베이성 청더시 출신. 다렌 외국어대학 일본어학부 졸업. 쓰촨 외국어학원 대학원 졸업. 국비유학생으로 미야기 교육대학에서 유학, 2000년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인문과학 박사 학위 취득. 도쿄 세이토쿠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호세이 대학 국제일본학 연구소 교수. 총리간담회 위원(국제 문화외교 추진) 그 외 정부계 유식자 위원회 위원과 일본 펜클럽(P.E.N club) 국제위원 등을 역임. 중일 문화관계를 중심의 비교문화, 국제일본학, 동북아시아 연구에 힘쓰고 있다. 1990년 중국 우수 번역상, 1992년 아마자키상, 1997년 이와테 일본문학상 겐지상을 수상. 2009년 문화장관 표창.



동아시아·서머스쿨 참가자로부터의 메세지

서머스쿨에 참가한 2주는 지금까지의 제 삶에 있어 가장 최선을 다한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일류강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과의 토의를 한 후 일정이 끝난 뒤에도 팀 발표 준비하는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벽에 부딪히는 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며 서머스쿨을 끝낸 저는 거듭 성장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최고의 동료들과 최고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서머스쿨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다 유키(일본:나라 현립대학)】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일본 나라현에 모여 매우 유익한 2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등 여러분야에 걸쳐 충실하고 귀중한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룹워크에서, 저희그룹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룹워크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서머 스쿨에 참가 하면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고 싶습니다.

【박진호(한국:대구대학교)】

서머스쿨에 참가한 것은 저에게 있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화, 환경, 경제, 역사, 관광, 교육,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여러나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다이지와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등의 시찰, 일본인 가정집 방문에서 보낸 시간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2주동안 매일 팀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샌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Zhao Qingmei (중국:상해 사범대학)】



서머스쿨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나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한 언어는 일본어 였는데, 일본어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잘못된 일본어로 얘기했을 때도 모두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일본어는 어려웠지만, 얘기하고 있으면 즐겁고 점점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일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에 좀 더 매진해나가고 싶습니다.

【Wang Zheng(대만:Kainan University)】

서머스쿨 덕분에 저는 여러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첫날엔 모르는 것 투성에 긴장도 되고, 자신도 없어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샌가 제 2의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13일이 너무 짧아 연수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와 문화, 정치 등 여러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머스쿨은 저를 성장시켜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Tran Nguyen Minh Phuong(베트남:Hue University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